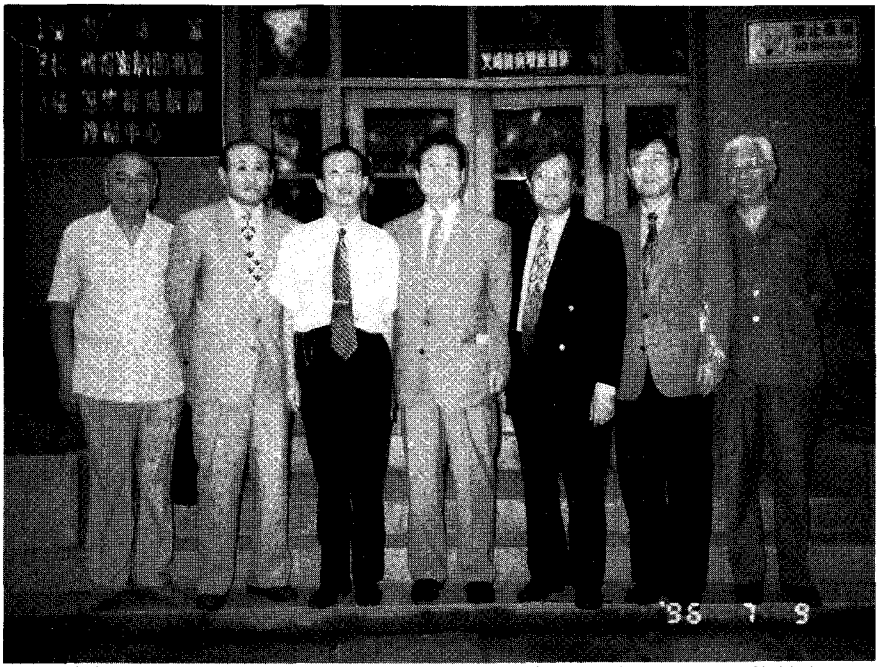
중국결핵협회 방문과 느낌

이 원 영
연세의대 내과교수 ·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중국결핵연구소 앞에서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李拯民 전 연구소장겸 중국결핵협회 부이사장, 신용선 충북지부 사무국장, 端木宏謹 북경시결핵 및 폐암연구소장겸 북경폐암결핵병원장, 박연수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필자, 조근수 서울지부 사무국장, 錢元福 역학관리담당.

금년에는 중국에서 초청을 하는 해라고 한다. 한 · 중결핵협회 자매결연협정(1995년 1월)에 따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중국의 대

표를 초청하여 교류를 갖은 바 있다. 올해의 중국 방문단은 4명으로 박연수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신용선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 조근수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사무국장과 본인으로 정해졌고, 등정의 날을 기다렸다.

우리 4명은 1996년 7월 8일 오후 1시 50분경에 중국국제항공 124편으로 서울을 떠났다. 두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황해바다를 넘어서 중국땅을 날아 북경수도공항에 도착하였다. 중국방노협회(중국결핵협회) 부이사장겸 사무총장인 張立興(Zhang Li-Xing) 일행이 영문으로 된 안내판을 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중에서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한·중간의 결핵관계교류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볼진데, 많은 문제점과 협력을 기대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비가오는 북경의 첫날이 시작되었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안내하는 대로 도착한 곳이 북경결핵관리연구소였다. 여기서 소장인 屠德華(Tu De-Hua)를 만나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오는 오후라 그런지 우중충하였다. 신기한 것은 많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잘 어울려 다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길이 넓은 것도 아니었다. 연구소방문이 끝나니 저녁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북경오리(peking duck)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와서 맛있는 음식과 孔府家酒(Kong-Fu-Zha-Joo)라는 술도 맛을 봤다. 시차도 별로 없는 거리에서 그날은 밤잠을 못자고 설쳤다.

중국식 아침을 먹고는 둘째날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역시 밤새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날씨였으나 더위를 피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나은것 같았다.

아침 일찍이 중국결핵연구소와 흉곽병원을 찾아서 갔다. 연구소에 이르자 여러사람을 만났고 한국과 우리 협회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등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어서 연구소의 소개와 업적을 들었다. 이곳에서 端木宏謹(Duan mu Hong Jin) 북경시결핵 및 폐암연구소장겸 북경폐암결핵병원장을 만나고 李拯民(Li Sheng Min) 전연구소장 겸 중국결핵협회 부이사장으로부터 실적과 내용을 소개받았다. 錢元福(Qian Yuan Fu)는 역학담당을 하고 WHO Manilla 사무실에서 다년간 근무한바 있는 석학이었다. 첫눈에 우리 협회 결핵연구원장을 연상시키는 사람으로 두사람은 서로 잘 알고, 좋은 강연을 중국에 와서 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또 한사람 알려진 이가 김상재 부원장으로 이곳 연구소 설립에도 자문을 했다고 말하였다. 조금

은 자랑 섞인 소개를 듣고나니 점심때가 되었다. 연구소와 병원을 두루 돌아보고 그곳을 떠나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다.

중국결핵관리에 대한 소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3차 전국무작위조사에 나타난 활동성폐결핵의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523명(0.5%)이다. 이것은 1979년에 비해 27%가 감소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연간감소율은 2.8%가 된다고 하였다. 도말양성 환자는 134/100,000, 28.3% 및 3.0%로 대비가 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환자비는 1 : 2.4이다.

2000년도에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결핵의 발생률 및 유병률 결핵 전파의 감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00년의 목표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결핵의 발생률 및 유병률 감소, 그리고 결핵 전파 감소에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것 중에는 발견율을 60-70%로 올리고, 치료율은 95%를 유지하고, 치료종결을 85%로, 균음전을 90%로 올린다는 것이다. 도말양성 환자 등록은 24.5%(도시가 40.7%, 농촌이 23.8%)이다. 균음전율은 87년도에 59.9%이였으나 92년도에는 80.8%를 보이고 있다. 치료환자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지연이 있는 경우가 45.3%이고, 치료중단이 44.2%가 된다.

결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7년동안 12개성에 1조 1,300만불인데 580만불은 세계은행차관으로 충당이 된다. 93년 치료성적중 치료 2개월말에 균음전은 82.6%이고, 3개월 말에는 90.2%였다고 한다. 西藏(Xi zang)성에는 일본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자의 cohort 분석으로는 객담상태불명이 1.7%(치료종결시), 완치 90.1%, 사망 2.8%, 실패 4.0%, 탈락 1.2% 및 전출이 0.2%라고 소개하였다. 우리와는 어떤 비교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했다.

저녁에는 載志澄(Dai Zhi cheng) 중국결핵협회 이사장의 초대가 있었고, 상당히 자신 만만하여 보였다. 거기서 많은 사람과 친교를 가질 수 있었다.

천안문광장과 자금성을 찾아서 왔다. 자금성에 들어서며 과연 규모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다.

다음에 頤和園(Yi he yuan=summer palace)에 이르러서 바다같이 넓은 호수와 섬, 그리고 통로마다 그려놓은 수많은 그림과 石舟(돌배)를 보고서 호화로움의 극치를 상상할 수 있었다. 중국의 명소인 만리장성을 보러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였고, 이윽고 날씨가 개였

다. 장성에 오르는 길은 세 곳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를 택하였다. 慕田峪長城(Mu Tian Yu Chang Cheng)이라 한다. 올라오는 입구에 마지막황제 부의가 쓴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다. 말과 사진으로만 보던 만리장성을 오르고 보니 참으로 대단하였다. 한편으로는 무상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7월 11일에 중국동방항공 5148편으로 상해로 출발하여 2시간여 만에 도착하였다. 역시 이곳에도 영접을 나와있었고 이곳 저곳에 건설이 진행중이었다. 밤샘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저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북경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여장을 풀고 예정대로 상해결핵센터 및 상해결핵협회를 방문, 현황과 사업보고를 듣고,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이곳 역시 폐암과 천식 등록이 되어 있었고, 진료도 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들 가운데 汪鐘賢(Wang Zhong xian)이라는 중국의학협회 결핵학회 부이사장겸 상해결핵협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과 許成文(Xu Cheng Wen)은 상해결핵 및 암치료소 소장을 맡고 있었다. 후생부결핵부주임으로 전 소장이었던 여의사 彭靖(Peng Jing)이 같이 일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 일행을 안내해주던 두 사람은 잊을수가 없는데 상해결핵폐암치료소의 부소장인 梅建(Mei Jian)과 林鬆柏(Lin Song bai) 치료부과장겸 역학담당을 하는 젊은의사였다. 상해결핵관리센터에서 얻은 자료에 따른 그들의 활동이 부럽기도 하였다.

그들 말에 의하면 1957년 경에는 상해의 결핵유병률이 4%로 중국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태였으나 부단히 노력한 결과 1990년에는 64/100,000으로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균양성은 1974년에 145/100,000이었으나 1990년에는 30/100,000로 연간 감소율이 9.4%였다. 또한 발병률로 보면 1956-1959년에 680/100,000, 1974-1979년에 120/100,000 그리고 1985-1989년에 57/100,000이다. 그외에도 참고되는 자료가 있었으나 최근 것은 알수가 없었다.

상해는 상해시위생국의 자문에 따른 상해결핵관리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 따라 국가결핵관리계획에 기반을 둔 중간단계의 결핵치료소를 운영하였다. 상해시위생국부국장인 袁惠章(Yuan Hui Zhang)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핵사업의 비중을 이해하고 있는것 같았다. 만찬도 베풀어 주었는데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상해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일행은 蘇州를 관광하게 되었다. 소주땅은 삼국지와 관련이 되는 곳이다. 이름은 기억을 못하나 기울어진 탑이 있었고 동양의 피사사탑이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吳王의 무덤도 볼수가 있었다.

7월 14일 우리는 중국동방항공 5041편으로 귀국을 하였다.

한국결핵관리 및 퇴치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결핵성폐질환에 대한 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야 함을 느꼈다. 깊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